

제2이사야서와 고레스 실린더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최철규(장신대)

1. 서론

구약 성경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를 본토로 귀환시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대하 36:22,23, 스 1:1-8).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에 의해 ‘나의 목자’라고 불리며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역사에서도 기원전 539년 바빌론에 진입한 고레스는 포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했다.

1879년 마르둑 신전이 있었던 옴란(Omran, 현재의 암란)에서 발견된 소위 고레스 실린더는 성경에 기록된 바빌론 포로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성서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관심은 제2이사야서와 고레스 실린더의 선후 영향 관계에 관한 관점은 다르지만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2이사야서와 고레스 실린

www.kci.go.kr

더의 모티브와 언어적 유사성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문서의 상호 관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2이사야서의 저작 시기와 관련이 있다.¹ 일반적으로 제2이사야서는 고레스의 바빌론 입성 1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된 제2이사야서가 당시 주변 세계에 퍼져 있었던 페르시아의 바빌론 정복을 위한 친 페르시아 프로파간다(pro-Persian propaganda)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² 더군다나 보수적으로 여전히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를 기원전 8세기로 보는 학자들에게 더더욱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와의 영향 관계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고레스 실린더의 마르둑 신관이 야훼 신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한다.³ 이러한 거부는 제2이사야서를 아시리아 비문과의 유사성을 더 지지하는 학계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⁴ 베스터만(C. Westermann)의 텍스트 비교 연구를 통해 1인칭 신적 발화자라는 양식적 유사성이나 모티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제2이사야서의 고레스 언급 내용은 시편 2편과 110편의 제왕시와 유사하고, 옛살핫돈 신탁(Assarhadon-Orakeln)의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주로 수용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아시리아의 영향이 더 우선한다는 주장을 꼭 수용할 필요는 없다. 샤푸디히(Hanspeter

1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19집 (2013년 6월), 140.

2 Morton Smith, “II Isaiah and the Persian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 (1963), 415-21.

3 Klaus Baltzer, *Deutero-Isaiah,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222-23.

4 Harmatta János, “The literary patterns of the Babylonian edict of Cyrus”,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19 (1971), 217-31.

5 Claus Westermann, *Sprache und Struktur der Prophetie Deuterjesajas* (Stuttgart: Calwer, 1981), 67.

Schaudig)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리아학’(Assyriology)은 어떤 역사를 가진 항상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페르시아’나 ‘메디아’의 단순하게 더 오래된 버전은 아닌 것이다.⁶

최근 제기된 제2이사야서의 편집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제2이사야서의 저작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5세기 중반까지 미루어진다.⁷ 이는 제2이사야서의 저작 시기가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1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재검토될 수 있다. 고레스 실린더는 아카드어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가진 제2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언어의 한계가 있으나, 두 문서의 표현, 내용 등을 비교하여 두 문서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1)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

고레스 실린더의 신관은 바빌론의 마르둑 신관이다. 일반적으로 고레스 실린더는 마르둑 사제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전반적인 내용은 마르둑 신에 의해 페르시아 고레스왕의 바빌론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고레스의 건축 업적과 바빌론이 약탈하여 옮겨온

6 Hanspeter Schaudig, “The Magnanimous Heart of Cyrus: The Cyrus Cylinder and its Literary Models¹”, in: M. Rahim Shayegan (ed.), *Cyrus the Great: Life and Lore*, Ilex Series 21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85.

7 Reinhard Gregor Kratz, *Kyros im Deuterocesaja-Buch: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ntstehung und Theologie von Jes 40-55* (Tuebingen: Mohr Siebeck, 1991), 216.

8 Irving Finkel, *The Cyrus Cylinder, The King of Persia's Proclamation from Ancient Babylon* (NY: I.B.Tauris & Co.Ltd, 2013), 7.

신들을 원래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1행에서 16행에서는 고레스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룬다. 바빌론의 전임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제사를 바르게 지내지 않았고, 마르둑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고, 정복한 도시들에 대한 자비가 없어서 마르둑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따라서 마르둑은 바빌론으로 옮겨온 신들을 원래의 지역으로 되돌리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 일의 책임자로 고레스를 선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행에서 30a행까지 두 번째 부분은 고레스의 바빌론 입성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마르둑의 고레스 선택과 무혈입성, 승리를 보여준다. 세 번째 내용인 30b행에서 36행은 다른 지역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슈안나로 가져온 신들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담고 있다. 또한 비록 내용이 소실되어 있으나 각 지역의 파괴된 신전을 재건하기 위한 음식과 자재를 지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37행에서 45행은 다른 고대의 기록들처럼 고레스의 건설 사업을 칭송하고 있다.

2)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유사성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유사성에 관하여 할라카의 권위자인 리히텐슈타인(Aaron Lichtenstein)은 이사야 40장에서 50장 안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5:1-4, 48:14-16, 44:28, 46(47):11).⁹ 라이언(D.G.Lyon)은 “열방과 왕들을 의로 불렀다,” “그의 이름과 칭호를 주었다,”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다”라는 부분이 일치하며,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마르둑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야훼로 기록된 차이를 제외하고는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9 Aaron Lichtenstein, “The Cyrus Cylinder and Isaiah 40-50”, *Jewish Bible Quarterly Vol. XVI:3(63)*, (Spring 1988), 164-69.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실제로 고레스 실린더를 살펴보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에서 제2이사야서와 일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고레스의 선택

이사야 41장 2절에서 3절에서 야훼는 동방에서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열국을 넘겨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라이언은 이 고레스의 선택의 부분에서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마르둑의 고레스 선택을 보여주는 고레스 실린더 12행에서 ‘의로움’과 관련된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일치성을 찾을 수 있다.

2절에서 고레스의 선택은 ‘יְקַרְאֵהוּ’ (이크라에후)로 ‘그가 그를 부르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2절에서 그가 부른 대상을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접미어로 축소하고 있으나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25절은 조금 더 고레스 실린더에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고레스의 선택을 ‘יְקַרְאֵהוּ בְשֵׁמוֹ’ (이크라 비셰미/나의 이름으로 부르다)로 3인칭 남성단수 인칭대명사 접미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고레스 실린더 12행에서 마르둑은 고레스를 ‘그의 이름으로(*ni-bi-it-su*)로 부른 것(*it-ta-bi*)’으로 되어 있다. 두 문서는 부르는 주체, 부르는 행위, 그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일치한다. 41장 25절 마소라 본문 제2이사야서는 ‘나의 이름으로’로 ‘1인칭 대명접미사’를 사용하고 있고, 고레스 실린더는 ‘3인칭 대명접미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1QIsa^a는 이 부분을 3인칭 대명 접미사를 사용하여 ‘בְשֵׁמוֹ’ (비셰모/ 그의 이름으로)로 기록하고 있다. 사해사본의 고대성을 생각할 때, 원문

10 D. G. Lyon, "The Cyrus Cylinder", *Journal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Exegesis*, Vol. 6, No. 1 (Jun., 1886), 139.

11 위의 글, 139.

은 고레스 실린더와 같은 3인칭 대명접미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마소라 본문이 후대에 주어와의 내용상 상관관계를 위해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2) 고레스의 승리

이사야 41장 2절에서 ‘לְרִנָּתוֹ’ (레라글로/그의 발로)는 고레스의 승리를 함축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레스 실린더 18행은 고레스의 승리를 “틴티르, 모든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민족들과 귀족들과 통치자들은 그의 왕권을 기뻐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다.”(개인역)¹²로 기록하고 있다. 18행에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ú-na-dš-ši-qu še-pu-uš-šu’를 번역한 것으로, ‘발’에 3인칭 대명접미사를 사용한 ‘לְרִנָּתוֹ’ (레라글로/그의 발로)의 표현과 일치한다. 이러한 표현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2절의 ‘לְרִנָּתוֹ’ (레라글로/그의 발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누가) 열방을 넘겨주고 왕들을 정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은 18행의 주어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레스 실린더 28행에서 30행에서도 고레스의 승리와 광범위한 지역의 통치를 ‘발’과 연관 짓고 있다. “(28행) 우리는 그의 현존, 그의 안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의 높으신 명령에 왕좌에 앉은 모든 왕들은(29행) 모든 사방과 높은 바다로부터 낮은 바다까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텐트에 사는 아무루 땅의 왕들, 그들 모두는 (30행) 무거운 조공을 슈안나로 가져왔고 내 발에 입 맞추었다. [슈안나]로부터 나는 그들의 장소, 그들의 성전이 일찍이 파괴되었던, 그 안

12 Irving Finkel, *The Cyrus Cylinder, The King of Persia's Proclamation from Ancient Babylon* (NY: I.B.Tauris & Co.Ltd, 2013), 5.

에 신들이 살았던 아슈르와 수사의 도시로.”(개인역)¹³ ‘לְרַגְלוֹ’ (레라글로/ 그의 발로)는 이러한 주변 민족에 대한 고레스의 승리를 표현한 고레스 실린더의 표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레스 실린더 15행은 고레스의 승리의 과정에 마르독이 매우 친밀하게 고레스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사야 41장 4절은 그 동행하는 신은 마르독이 아니라 ‘나 야훼’(הָיָה אֲנִי/아니 야훼)이고 ‘내가 그다’(אֲנִי הָיָה/아니 후)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마소라 텍스트는 ‘나 야훼’(הָיָה אֲנִי/아니 야훼)를 설명하면서 ‘나 야훼’(הָיָה אֲנִי/아니 야훼)는 처음(רִאשׁוֹן/리손)이고 나중과 함께(אַחֲרָיִם/베엘 아하로님)한 그가 나다(אֲנִי הָיָה/아니 후)’라고 기록하는데,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אַחֲרָיִם’(아하로님/나중)에만 ‘함께’로 해석할 수 있는 ‘אַחַ’ (엘/~을,~와 함께)를 붙였다. ‘אַחֲרָיִם’(아하로님/나중)은 부사적으로도 사용되지만(창 33:2, 삼하 19:12), 뒤에 오는 사람으로도 사용된다(스 8:13, 욥 18:20). 따라서 제2이사야서가 ‘אַחֲרָיִם’(아하로님/나중)에 ‘אַחַ’ (엘/~을,~와 함께)을 추가한 이유는 ‘אַחֲרָיִם’(아하로님/나중)을 사람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레스 실린더 15행에서 마르독이 바빌론 행진에서 ‘그(고레스)의 옆에서 함께’(i-da-a-šū) 했다는 표현이 있다. 동행하는 자 야훼의 개념과 마르독의 동행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레스 실린더의 ‘그’는 마르독이 아니라 ‘야훼, 바로 나’였다는 반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사야 41장 3절에서 “평화롭게”(שָׁלוֹם/shalom) 건넜다는 내용은 고레스 실린더 24행에서 ‘나의 거대한 군대는 평화롭게(šū-ul-ma-niš) 바빌론으로 행진했고’와 일치한다.

13 위의 책, 6.

(3) 귀환 대상: 사방, 모두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유사성은 귀환 대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라는 귀환 명령은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귀환의 대상은 동서남북 사방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다. 먼저 이사야서의 사방 위는 구약성경의 다른 사방 위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글 구약 성경의 사방위는 ‘סָבִיב’(사빔/둘레)이나 ‘כָּל-אַרְצֵי’(콜 에레츠/모든 땅)와 관련이 있을 뿐 실제 사방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이사야서의 명확한 사방 표현은 고레스 실린더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한다. 첫 문자가 희미하지만, 사방을 의미하는 ‘*ki-ib-ra-a-tim*’을 고레스 실린더 2행에서 볼 수 있고, 20행에서 고레스가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을 ‘세계 사방의 왕’(*kib-ra-a-ti er-bé-et-tim*)’으로 읽고 있는데, 히브리어 숫자 4는 ‘אַרְבַּע’(아르바/4)이고, 아카드어에서는 “*arba’u(m)*”, “*erbe*”와 같이 발음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9행에서도 고레스의 발 앞에 공물을 가져오고 고레스의 발에 입맞춤을 한 사람들이 ‘모든 사방 지역’(*ka-li-iš kib-ra-a-ta*)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세계를 사방위로 보는 관점을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가 공유하고 있다.

두 문서의 유사성은 귀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사람’은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의 고레스 칙령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고레스 실린더 32행에서 고레스가 신들을 원래의 장소로 보내면서 그들의 모든 민족(‘*kul-lat UN.MEŠ-šú-nu*’/모든 그들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정착지로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다.

(4) 이스라엘의 범죄

두 문서의 유사성은 언어적 요소 이외에도 주제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은 야곱/이스라엘의 제의적 범죄

가 기록되어 있다. 22절에서는 야곱이 야훼를 괴롭게 여긴 것, 23절은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은 것과 제물로 야훼를 공경하지 않은 것, 24절은 희생의 기름으로 야훼를 흠족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제2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발처는 이 부분이 비교적 독립적인 구절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발처는 포로 상황에서 이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허물을 기억하며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혹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조상들과 같은 죄를 되돌리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석한다.¹⁵

이런 제사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심판 받은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는 가는 문제가 된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안식일에 가득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남유다 멸망시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야훼가 이러한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을 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렘 7:22).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생 제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¹⁶ 발처는 이런 내용은 단순히 그 문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발처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 내용은 심판을 받은 조상들의 죄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현재 제사가 이뤄지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야훼의 판결문이다.¹⁷

제2이사야서에서 야훼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재판 구문은 42장 24절과 50장 1절에서 3절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42장 24절에

14 Klaus Baltzer, *Hermeneia, Deutero-Isaiah*, 176.

15 위의 책, 180.

16 위의 책, 178.

17 위의 책, 182.

18 Paul D. Hanson, *Isaiah 40-66,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서 이스라엘의 죄는 ‘그의 길’(בְּדַרְכָּיו/비드라카브)을 걷지 않고 ‘그의 교훈’(יְהוָה/베토라트)을 듣지 않은 것이다. 5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너희의 죄악’(עוֹנוֹתֵיכֶם/아보노테켄)과 ‘너희의 배역함’(פְּשָׁעֵיכֶם/피쉬에켄)이다. 이스라엘의 죄에 불성실한 제의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두 본문은 제의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아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제의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둑이 고레스를 선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의에 대한 나보니두스의 제의 불성실성은 첫째는 예사길의 모조품을 제작하고 세운 일(고레스 실린더 4, 5행), 둘째는 신들에게 적절한 제의를 행하지 않은 일(고레스 실린더 6행), 셋째는 신들에게 드려야 할 매일 제물을 멈춘 일(고레스 실린더 7행), 넷째는 그들의 고유한 영역에 살던 신들을 슈안나(바빌론)으로 가져와 그 지역을 떠나도록 만든 일(고레스 실린더 10행)이다. 따라서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에서 지적인 제물을 가져오지 않거나 흠족하게 드리지 않은 제의의 불성실과 제의를 귀찮아했던 내용은 고레스 실린더에 나타난 나보니두스의 죄와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의 야곱/이스라엘의 죄악을 제의와 관련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고레스 실린더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나보니두스의 죄를 제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5) 고레스 언급

제2이사야서와 고레스 실린더의 명확한 연관성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4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발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진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77.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⁹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𒀭𒌷𒍪𒌷𒍪𒀭** **𒀭𒌷𒍪𒌷𒍪𒀭** (헤헤자크티 비미노/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할 뿐으로 이는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가보다는 야훼의 인도와 보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 12행은 안산의 왕인 고레스를 왕으로 선택할 때, 마르둑이 ‘고레스의 손을 잡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레나 소피아 티마이어(Lena-Sofia Teameyer)는 ‘고레스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고레스 실린더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야 45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히브리어 **יָדָה** (헤헤지크 야드/그가 손을 강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아카드어 *qāta šabātu*나 *qāta ahāzu*를 고레스 실린더 전체에서 발견할 수 없고, 고레스 실린더에서 사용한 *it-ta-ma-aḥ qa-tu-uš-šu*는 ‘그의 손으로 주었다’(to give in the hand)를 의미하는 *tamāḥu* + *qātu*에서 나왔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또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른데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그 손이 고레스의 것이고, 고레스 실린더는 그 손이 마르둑의 손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²⁰

티마이어는 고레스 실린더가 동사 *šabātu*나 *ahāzu*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tamāḥu*에는 ‘붙잡다’(to seize)라는 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휴너가르드(John Huehnergard)의 아카드어 문법책에서는 *tamāḥum*에 ‘붙잡다’(to grasp)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tamāḥum*은 *šabātum*의 *t*삽입형 기본어근형(Grundstamme infix *t*)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¹ 따

19 Klaus Baltzer, *Hermeneia, Deutero-Isaiah*, 222.

20 Lena-Sofia Tiemeyer, *For the Comfort of Zion: the Geographical and Theological Location of Isaiah 40-55* (Boston: Brill, 2011), 96.

21 John Huehnergard, *A grammar of Akkadian*, 3rd e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라서 재귀의 성격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주어와 목적어의 혼동에 대해서도 티마이어는 ‘רַחֵם יְיָ’로 표현하고 있는데 ‘רַחֵם’(하자크/강하게 하다)가 ‘~을 붙잡다’라고 사용된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용례를 살펴 보면 전치사 ‘בְּ’를 사용하고 있다(출 4:4, 사 19:4, 왕하 4:8). 즉, ‘붙잡다’라는 뜻은 רַחֵם(야드/손)에 전치사 בְּ(브/~안에)가 없는 ‘רַחֵם יְיָ’가 아니라 전치사 בְּ(브/~안에)가 붙은 ‘בְּרַחֵם יְיָ’ 형태가 구약성경을 따르는 형태이다. 티마이어는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과 서로 관련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전치사 ‘בְּ’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마이어는 샤우디히의 번역을 바탕으로 마르둑이 고레스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샤우디히는 나보니두스 비문에서 *tamāhu + qātu*를 ‘돕기 위해 붙잡다’(to take up in order to assist)라고 해석했고,²²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고레스 실린더의 번역에서도 자신의 주장대로 번역하고 있다.²³

샤우디히가 ‘그(마르둑)의 손’으로 번역한 아카드어는 *qa-tu-uš-šu*로 명사 *qa-tu*(손)에 전치사 *uš + šu*(전치사에 붙는 대명 접미사)이다. 고레스 실린더 안에 *uš + šu*는 문제가 되는 12행 이외에도 17행(*qa-tu-uš-šu*), 18행(*še-pu-uš-šu*)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샤우디히는 17행은 “(Marduk) delivered into (Cyrus’) hands Nabonidus” 18행은 “kissed his feet”으로 동일한 구문에서 대명접미사 *šu*를 고레스로 번역하고 있다.²⁴ 핑켈(Irving

2011), 525.

22 Hanspeter Schaudig, *Inschriften Nabonids von Babylon und Kyros’ des Großen, samt den in ihrem Umfeld entstandenen Tendenzschriften: Textausgabe und Grammatik* (Münster: Ugarit-Verlag, 2001), 684. 위의 책, 96쪽에서 재인용.

23 Hanspeter Schaudig, “The Text of the Cyrus Cylinder”, in: M. Rahim Shayegan (ed.), *Cyrus the Great: Life and Lore*, Ilex Series 21, 22.

24 위의 글, 23.

Finkel) 또한 마르둑이 고레스의 손을 잡은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아카드어 구문을 통한 티마이어의 유사성 반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티마이어는 제2이사야서의 저자가 고레스 실린더의 췌기 문자를 읽었을 리가 없고 선포된 것을 듣기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²⁶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레스 실린더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고레스 실린더는 원형으로 된 점토 실린더인데, 왕의 업적을 기리는 건물 비문이나 기념비가 아닌 복사와 이동이 용이한 이러한 형태는 같은 내용을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고대의 선전 문서이기에 그 내용을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또한 콜레(Jan L. Koole)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사용된 “רַעִי” (로이/나의 목자)가 마소라 텍스트 내에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²⁷ 콜레는 ‘רַעִי’ (로이/나의 목자) 이외에도 רַעָה (라아/목축하다)의 다른 뜻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콜레는 사무엘하 15장 37절에서 다윗의 친구(רַעָה, 레에/친구) 후세처럼 ‘רַעָה’의 두 번째 뜻인 ‘사귀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다’의 의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⁸ 이 주장에 따르면 고레스 실린더에서 “마르둑이 이 페르시아의 정복자와 ‘친구처럼’(ki-ma ib-ri) 동행했다”는 구절도 두 문서의 연관성을 시사한다.²⁹

25 Irving Finkel, *The Cyrus Cylinder*, 5.

26 Lena-Sofia Tiemeyer, *For the Comfort of Zion: the Geographical and Theological Location of Isaiah 40-55*, 97.

27 Jan L. Koole,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SALAH, Part3. Vol.1*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7), 425.

28 위의 책, 425.

29 여기에서 ‘나의 친구’는 개역개정 이사야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한 “나의 벗”(רַעִי, 오하비/나의 사랑하는 자)과는 다르다.

(6) 신명 ‘벨과 느보’

이사야 46장 1절에는 벨과 느보라는 바빌론의 신명이 기록되어 있다. 벨은 아카드어로는 ‘벨루’(bēlu)³⁰로 구약 성경에서 ‘바알’에 해당하며, 바빌론의 신으로 마르둑의 이름 중에 하나로 사용된다. 느보는 아카드어로 ‘나부’(nabū)³¹이고 바빌론에서 멀지 않은 도시 보르시파의 신명이다. 바빌론 신화에 따르면 마르둑³²의 아들이다. 구약 성경 안에서 ‘벨’은 3회 나타나지만, ‘느보’는 오직 여기에만 나타난다. 2011년 발간된 프리차드의 *The Ancient Near East*에 따르면 벨과 느보는 다양한 형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신전에 다양한 신명을 열거할 때도 함께 등장하고, 벨이라는 이름 이외에 ‘마르둑과 나부’의 형태로는 몇 차례 나타난다. ‘벨과 나부’로 등장하는 경우는 에살 핫돈 이후부터 자주 발견된다.³³

‘벨과 느보’가 고레스 실린더와 이사야서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문서가 공유하고 있는 ‘벨과 느보’라는 신명은 기존에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연관성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였던 친 페르시아 프로파간다라는 근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친 페르시아 프로파간다는 제2이사야서의 저작 시기를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10여 전의 기간으로 설정한 후에 두 문서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추정이다. 반면에 ‘벨과 느보’는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의 이유는 나보니두스가 마르둑 제의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0



31



32



33

James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 –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392.

기존의 주장처럼 제2이사야서의 기록 시기가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10여 년 전이라면 나보니두스의 재임 기간에 해당한다. 나보니두스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혹은 4년부터 10년간 바빌론을 떠나 테마에 머물렀다.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을 떠난 이유는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갈등이었다. 나보니두스는 마르둑을 달의 신 신(*Sin*)으로 대체했고, 바빌론을 떠난 10년간 바빌론 신년 축제인 아키투 축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바빌론으로 돌아온 재위 1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였고, 고레스에 의해 바빌론이 정복당하던 마지막 해에 이뤄진 아키투 축제는 이미 마르둑 제사장들을 달래기에는 시기가 늦어 버렸다.³⁴

제2이사야서 안에는 여러 곳에서 아키투 축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바빌론 붕괴 전 10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던 아키투 축제의 내용을 제2이사야가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록 연대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제2이사야가 접할 수 있었던 바빌론의 주신은 나보니두스가 대체한 달의 신 신(*Sin*)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2이사야서에서 달의 신 신(*Sin*)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2이사야가 접할 수 없었던 벨과 느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키투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그 축제에서 벨과 느보의 행진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달의 신 신(*Sin*)은 등장하지 않고 마르둑과 느보만 신으로 제시되는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는 다음과 같이 마르둑 제의와 아키투 축제가 재건되었다고 설명한다.

34 Paul-Alain Beaulieu, *The Reign of Nabonidus King of Babylon 556-539 B.C.*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898), 149-69.

마르둑 신봉자들은 페르시아인들이 도착하고, 그 “이단적인 왕”의 장면에서 사라진 후에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정복 이후에 나보니두스는 폐위되었고, 마르둑은 최고의 신으로 복권되었고, 아키투 축제가 재개되었다. 짧게 말하자면, 외국의 후원하에서.³⁵

이 설명에 따르면 마르둑은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이후에 최고의 신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제2이사야서는 벨과 느보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야훼가 왕이고, 최고의 신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바빌론 정복 10여 년 전 벨과 느보가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지 못한 상황에서 벨과 느보를 야훼의 지위를 위협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주장하기는 비합리적이다. 또한 친 페르시아 프로파간다를 수용했다는 주장도 왜 페르시아의 주신인 ‘아후라마즈다’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마르둑과 느보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 46장 1절의 ‘벨과 느보’라는 명확한 신명은 제2이사야서의 저자가 접했을 아키투 축제와 고레스 실린더와 같은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위로 선포된 우상을 거부하고 야훼가 최고의 신이라는 주장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고레스를 부른 의도와 신적 주체

리히텐슈타인은 마르둑이 고레스의 행위를 기뻐했다는 고레스 실린더 22행과 야훼가 고레스를 사랑했다는 이사야 48장 14절에서 16절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³⁶ 리히텐슈타인은 마르둑의 기쁨과 야훼의 사

35 Joseph Blenkinsopp, “Deutero-Isaiah and the Creator God: Yahweh, Ahuramazda, Marduk”, *Essays on Judaism in the Pre-Hellenistic Period.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495. (Berlin; Boston: De Gruyter, 2017). 26.

36 Aaron Lichtenstein, “The Cyrus Cylinder and Isaiah 40-50”, 165.

량을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48장 14절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45장 1절과는 다르지만, 3인칭 인칭 접미사를 동사에 결합한 ‘אהבו’ (아헤보/그가 그를 사랑한다)에서 지시하는 목적어가 고레스 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8장 14절에서 고레스는 바빌론과 갈데아 사람들에게 야훼의 기쁨과 야훼의 손(권능)을 행하는 대리자이다. 여기에서 바빌론과 갈데아 사람들에게 행할 야훼의 기뻐하는 뜻과 손은 바빌론 정복을 의미할 것이다. 고레스 실린더 22행은 고레스가 바빌론에 평화의 선구자로 들어 갔을 때 벨과 나부가 그의 통치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들어가 행한 통치 행위를 사랑했다는 내용은 두 문서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또한 48장 15절은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다만 그 신적 주체는 마르дук이 아니라 야훼다. 마르дук이 아니라 야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 나’ (אני אני/아니 아니)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 나’가 고레스에게 행한 일은 14절과 동일하게 3인칭 남성 접미사를 사용하여, 그를 부르고(קראתי/케라티브), 그를 인도하였고(הביאתי/하비오티브), 그의 길을 행통하게 했다(הצליתי/히칠리아흐 다르코). 이 사야 48장 15절에서 나타난 야훼의 이 세 행동은 고레스 실린더에 나타난 마르дук의 행위를 요약하고 있다.

고레스 실린더 12행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고’(it-ta-bi ni-bi-it-su),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가야한다고 그를 인도했고(a-na URU-šu KÁ.DINGIR.MEŠ.KI a-la-ak-šu iq-bi ú-ša-aš-bi-it-su-ma ḥar-ra-nu TIN.TIR.KI), 15절의 세 번째 동사의 목적어인 ‘그의 길’은 고레스 실린더 15행의 ‘바빌론으로 향하는 길’(ḥar-ra-nu TIN.TIR.KI)과 일치하며, 고레스 실린더 15행은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의 옆에서(i-da-a-šu)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레스 실린더 17행에서 ‘그는 그를 싸움이

나 전투 없이 수안나로 바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내용은 세 번째 동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문서의 차이는 그 일을 행한 신적 주체이다. 고레스 실린더는 그 주어를 마르둑으로, 이사야서는 ‘나’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나’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고레스를 부르고,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한 신적 존재는 마르둑이 아니라 바로 나(야훼)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1879년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된 직후부터 제2이사야서와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두 문서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포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하게 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명이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더욱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고대 비문이 그렇듯이 어느 것이 어떤 문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하기에는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다. 고레스 실린더뿐 아니라 제2이사야서의 표현도 당시의 보편적인 아시리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아시리아 문서의 영향을 무시하고 두 문서의 영향 관계를 밝혀 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존 학계는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아시리아의 영향이라거나 고레스가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바빌론 정복 약 10년 전부터의 영향이라는 논리로 두 문서의 연관 관계를 이해해 왔다. 또한 두 문서의 주체적인 ‘신’이 마르둑과 야훼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왔다.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는 표현상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마르둑이 고레스에게 보여주었던 고레스의 선택과 승리, 고레스의 업적까지 제2이사야서와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제2이사야서의 신학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설득이 되는 점이 있다. 제2이사야서는 바빌론의 다신교적 배경 속에서 야훼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³⁷ 고레스 실린더는 바빌론의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전제하고 정복자인 고레스를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바빌론 정복을 마르둑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신학을 가진 문서이다. 반대로 제2이사야서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의 승리자를 선택하는 일도 유일하신 야훼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신학을 가진 문서이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학적 문서가 각자의 신학적 관점으로 고레스의 등극, 승리, 형통, 각 민족의 분국 귀환 같은 역사적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신학적 관점과 강조가 제2이사야서 안에서 ‘나 나’(אֲנִי אֲנִי/아니 아니), ‘내가 그다’(אֲנִי אֲנִי/아니 후), ‘내가 야훼다’(אֲנִי אֲנִי/아니 야훼)로 드러나고 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고레스를 그 지역의 패권자로 세운 최고의 신 마르둑 주도권을 제2이사야서는 고레스 실린더의 핵심 내용을 유일신 야훼 주도권으로 반박하여 야훼 유일신 신학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고레스의 바빌론 정복 약 10여년 전에서부터 정복시기까지 나보니두스에 의해 마르둑은 최고의 신의 자리에서 밀려난 상황이 제2이사야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제2이사야가 반박하고자 했던 야훼 유일신 신학이 왜 고레스 실린더의 마르둑 신학과 관련이 있는지를 더욱 잘 보여준다.

따라서 고레스 실린더와 제2이사야서의 연관 관계를 인정하고, 기

37 오택현, “제2이사야에 반영된 신명서 역사의 유일신 신학”, 『구약논단』, 5집 (1998년 10월), 87.

존에 주장되었던 두 문서의 연관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오택현, “제2아시아에 반영된 신명기 역사의 유일신 신학”, 「구약논단」, 5집 (1998년 10월), 79-96.
-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19권 2호 (2013년 6월), 128-166.
- Baltzer, Klaus, *Deutero-Isaiah,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Beaulieu, Paul-Alain, *The Reign of Nabonidus King of Babylon 556-539 B.C.*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898).
- Blenkinsopp, Joseph, “Deutero-Isaiah and the Creator God: Yahweh, Ahuramazda, Marduk”, *Essays on Judaism in the Pre-Hellenistic Period.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495. (Berlin; Boston: De Gruyter, 2017), 15-29.
- Finkel, Irving, *The Cyrus Cylinder, The King of Persia's Proclamation from Ancient Babylon* (NY: I.B.Tauris & Co.Ltd, 2013).
- Hanson, Paul D., *Isaiah 40-66,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 Huehnergard, John, *A grammar of Akkadian, 3rd e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1).
- János, Harmatta, “The literary patterns of the Babylonian edict of Cyrus”,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19 (1971), 217-31.
- Koole, Jan L.,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SAIAH, Part3. Vol.1*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7).
- Kratz, Reinhard Gregor, *Cyros im Deuterocesaja-Buch :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ntstehung und Theologie von Jes 40-55* (Tuebingen: Mohr Siebeck), 1991).
- Lyon, D. G., “The Cyrus Cylinder”, *Journal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Exegesis*, Vol. 6, No. 1 (Jun., 1886), 139.
- Pritchard, James B., *The Ancient Near East –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Schaudig, Hanspeter, “The Magnanimous Heart of Cyrus: The Cyrus Cylinder and its Literary Models”, in: M. Rahim Shayegan (ed.), *Cyrus the Great: Life and Lore*, Ilex Series 21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67-91.
- _____. “The Text of the Cyrus Cylinder”, in: M. Rahim Shayegan (ed.), *Cyrus the Great: Life and Lore*, Ilex Series 21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16-25.
- _____. *Inschriften Nabonids von Babylon und Kyros' des Großen, samt den in ihrem Umfeld entstandenen Tendenzschriften: Textausgabe und Grammatik* (Münster: Ugarit-Verlag, 2001).
- Smith, Morton, “II Isaiah and the Persian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 (1963), 415-21.
- Tiemeyer, Lena-Sofia, *For the Comfort of Zion : the Geographical and Theological Location of Isaiah 40-55* (Boston: Brill, 2011).
- Westermann, Claus, *Sprache und Struktur der Prophetie Deuterocesaja* (Stuttgart: Calwer, 1981).

검색어

고레스 실린더, 제2이사야, 마르둑, 벨, 나부, 느보, 아키투 축제, 유일신

[ABSTRACT]

A Study on the Similarities between Deutero-Isaiah and the Cyrus Cylinder

Chol-Gyu Choi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demonstrates significant similarities between the so-called Cyrus Cylinder, discovered in 1879, and Deutero-Isaiah, particularly chapters 40 to 55 of the book of Isaiah. Although numerous scholars have noted the parallels between the two texts, their similarity has frequently been dismissed on the grounds of the Assyrian origins of both documents, the suggestion that the author of Deutero-Isaiah incorporated pro-Persian propaganda, or the theological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It compares the Akkadian expressions found in the Cyrus Cylinder with the Hebrew text of Deutero-Isaiah,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ocuments through the theology of Deutero-Isaiah. The two texts share several key them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Cyrus, his royal victory, the conquest of Babylon, and the return of the exiles, as well as a number of smaller elements.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noted similarities in expression, this study refutes the claim of pro-Persian propaganda by highlighting the shared deities, Bel and Nebo, between the two texts. These parallels are particularly evident in Isaiah 41:2-4, 25; 43:5-7, 22-24; 44:28-45:4; 46:1; and 48:14-15. Building on these parallels, this study challenges previous claims and seeks to understand the incorporation of the Cyrus Cylinder into Deutero-Isaiah from the

www.kci.go.kr

perspective of monotheism. Both documents are theological in nature. Whereas the Cyrus Cylinder attributes Cyrus's authority to the will of supreme deity Marduk, the author of Deutero-Isaiah reinterprets this theological framework within a Yahwistic monotheism, asserting that the gods of the nations are mere idols and that YHWH alone is the one true God.

key words

Cyrus Cylinder, Deutero-Isaiah, Marduk, Bel, Nabu, Nebo, Akitu Festival, Monotheism

투고일: 2025년 04월 16일

심사일: 2025년 05월 2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6월 02일

www.kci.go.kr